



두번째 상황: Teens 잡지

여러분 학교 도서관엔 조사를 위한 여러 종류의 신문과 현시세를 담은 잡지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보도하며 “평화에 반대되는” 문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가치와 평화 건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더 알려지고자 하는 TEENS 또는 CITTÀ NUOVA(그물)지를 소개하고픈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 있을 학교 학생회의에서 소개하는 것은 어떤가요?

관중: 학교의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결론: 프레젠테이션을 한 그룹에 피드백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면이 좋았고 그 중 설득력이 가장 높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대신 어떤 부분이 불분명했고 효과가 적었나요?

마지막으로 참가자 사이에 대화의 자리를 연다:

-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했고 성공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장 힘든 도전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 도전을 상대로 이겨냈나요?
- 이 활동을 통해 습득한 중요한 것을 그룹과 나누었습니까?
- 시뮬레이션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퍼뜨린다는 것이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여러분의 실생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퍼뜨려야
만약 평화를 건설하고자 배운다면...



이렇게 살아요

저는 아랍계 크리스찬으로 이스라엘에 살고있습니다. 자주 저는 사람과 신분증을 살살이 검사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통행검사를 지나가야 합니다. 시민들과 군인들 사이에는 긴장이 팽팽합니다. 증오는 간혹 말싸움과 폭력으로 분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념은 통행검사를 지나가야 하는 저의 행동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 순서가 되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군인들은 저를 줄 맨뒤로 보내어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시 제 차례가 오자 미소를 지으며 군인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통 볼 수 없는 제 표정에 놀란 군인은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분이 저를 기쁘게 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폭력과 증오로 인해 발발하는 수많은 테러를

가리키며 어찌하여 제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것들이 일어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저에게 군인은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쁜일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란 군인은 “너처럼 행복한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도전은 제 또래들의 한 유대인 그룹도 우리처럼 일치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만일 크리스찬들과 이슬람교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떤 차별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유대인 아이를 만나면서 전생애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유대인과 말을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두려움이 앞섰지만, 우리는 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둘 다 평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H.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발걸음»



끼아라 루빅, 카스텔간돌포, 1987년6월6일
수퍼 3젠 대회 - n°8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3젠들은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안에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때에 평화가 없는데 고통이나 의문, 근심과 무언가 괴롭히는 것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평화를 찾기위해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즉시로 자신 밖으로 나와 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만 다시 평화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전세계 3젠들 사이에 평화를 지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만일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평화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치와 우리 가운데 예수

님의 현존을 항상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업회의 다른 가지에 속한 회원들과도 우리 사이에 항상 예수님의 현존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평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에 있건 여러분 주위에 "일치를 위한 소년 소녀" 운동을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또래에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세상은 일치를 향해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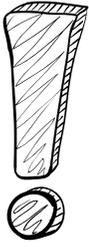
어떤 인간상이 미래 세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 세대에 맞는 모델이 될 만한 인간상은 일치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아서 알다시피 아직도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협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증표를 알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치입니다.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일치로 향합니다. 유럽처럼 연맹을 맺길 원하는 여러 국가들,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 회의는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교들이 함께 일하도록 엮어주는 수단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 교회들도 여러 세기에 걸쳐 분쟁과 무관심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일치를 향해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엔같은 여

러 국제 기구는 세계를 하나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통신수단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의 인간은 일치의 인간입니다.** '세계인 uomo-mondo'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인간은 전 대륙 사람들의 부유함을 마음 안에 다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이들에게 이 부유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미래의 인간은 일치의 인간이고 바로 이런 '세계인 uomo-mondo'입니다.

끼아라 루빅, 마리노(로마) 1997
년 5월 10일 수퍼3젠대회 - n°13

우리는 행복을
만약 평화를 건설하고자 배운다면...



한번 시도해 봅시다!

☞ 평화를 갈구하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많은 전쟁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의 통해 세계지도 위에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해보자. 타임아웃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 할 수 있다. 젠 보조자들을 통해 이런 나라에 살고있는 3젠 또는 일치된 세계를 위한 소년 소녀들과 연락할 수도 있다.

☞ 스포츠는 형제애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일 운동 선수들이 다국적이거나 또는 여러 종교에 속한 경우 이런 역할은 더 크다. 몇 명의 3젠들은 투어를 조직했는데 sport-s4peace의 규칙으로 진행한 단순한 팀경기였다. 시작 전과 경기 중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선수들은 sports4peace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팀은 경기중 점수를 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에 적힌 여섯가지의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었다.

Play hard –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경기에 참여한다.

Play fair! 자기 자신과 다른이들에게 솔직하게 행동한다.

Hang in! 어려울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Take care of! 각자를 존중히 대우한다. 한명 한명은 중요하다.

Celebrate! 상대방의 승리를 나의 승리처럼 기뻐한다.

Make a difference! 높은 목표는 단지 함께 할 때만 도달할 수 있다.

더 알고 싶다면 sport4pea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portmeet.org/eventi/sports4peace/>)

<http://www.sportmeet.org/eventi/sports4peace/>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딪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메모해 두자. 다음 모임에 체험을 나눌때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어떻게 소통(전달)하였나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 때 저는 무엇을 제안할 수 있었나요?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② 제안한 활동을 통해 3젠들은 산상수훈에 대해 흥미를 더 키웠습니까?
- ② 3젠들 사이에서 특별히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 ②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3젠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모임때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지탱하는데 집중합시다.
- ② 모임에서 다룬 주제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모임때 다루어야 할 부족한 점이 남아있습니까?
- ② 모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번 모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염두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